

발음 교육에 대한 단상

김 현*

〈차 례〉

- I. 서 론
- II.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적 연구
 - 1. 발음 실태 조사
 - 2. 교육 및 지도 방법
- III. 발음 교육의 내용
 - 1. 음운의 정확한 발음
 - 2. 단어의 표준발음
- IV. 결 론

I. 서 론

발음 교육의 목표가 국어과의 교육 과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어과 전체의 교육 목표로부터 발음과 관련된 것을 추출하여 보면, 대체로 '바르'거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언어 생활'로 집약될 수 있다. 사전적 정의로 보아 바르다는 것과 정확하다는 것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므로,¹⁾ 발음 교육의 목표는 정확, 즉 사회적 규범에 분명하게 맞

* 아주대학교

1)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바르다 : ②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들어맞다.

정확(正確) : 바르고 확실함.

효과적(效果的) :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또는 그런 것.

고 효과적인 언어 생활이 가능하도록 발음하게 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겠다.

이러한 발음 교육의 목표가 곧 표준 발음의 교육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확인할 수 없을 듯하다. 예를 들어 동남방언권 화자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밟-(踏)+-는다’는 /발른다/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른다/는 같은 방언권이라는 사회 속에서 약속되어 있는 발음이며,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적인 발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 중 어느 한 편이 이 활용형을 표준 발음에 따라 /받는다/라고 발음한다면 청자는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청자가 표준 발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혹 ‘받’이나 ‘받’, ‘밟’이라는 용언 어간이 있어 그것을 발음하였다고 느낄 수가 있으며, 만일 청자가 표준 발음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격식을 차린 것으로 받아들여 심정적 거리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조금 다른 경우의 예로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개/와 /개/ 및 음장을 구별하여 발음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청자에게, 이들을 모두 구별할 줄 아는 화자가 말을 건넌다고 하자. ‘개(犬)’, ‘개(웃놀이)’와 ‘개(蟹)’, ‘개(거기)’의 표준 발음은 각각 /개:/, /개/와 /개:/, /개/이다. 그러나 이 경우 네 단어의 발음을 각각 달리한다고 하여도 그 발음만으로는 청자가 의미를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자는 굳이 이들을 구별하여 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들 모두를 [kE] 정도로 발음하는 편이 화자에게는 조음상의 주의를 덜 기울이면서도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렇듯 표준 발음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국민 모두가 모든 발화 상황에서 표준 발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필줄 필자)”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상적인 발화에서와 공식적인 발화에서 발음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같은 방언권 화자와의 대화에서와 다른 방언권 화자와의 대화에서 발음을 달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동일 방언권 화자와의 일상적인 대화이더라도 심각한 갈등을 일으

킬 만한 사안에 대하여 설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견해를 보다 객관화하려는 의도로 표준 발음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결국 “필요에 따라 이중방언(二重方言)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박갑수 2004:21)하다고 할 것이다.²⁾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준어’ 및 그 뜻풀이에 나오는 ‘공용어’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표준어의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하여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준어(標準語) :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용어(公用語) : ① 한 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 ② 국제회의나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

표준어는 공식적으로 쓰는 규범적 언어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의사소통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공식적이지 않은 자리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표준어인 셈이다. 그 경우 우리는 기층방언의 발음 습관에 따르면 되는데, 기층방언은 자연스레 습득되므로 학교 교육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화 상황에서 혹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는 표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식적인 발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바,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의 해설에서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이라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표준어는 비록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층방언으로는 의사소통이 원만

2) 표준어는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방언’은 편의상의 용어일 뿐이다. 표준어와 대비하여 화자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방언을 ‘기층방언’이라 부르도록 한다.

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예컨대 서로 다른 방언권의 화자들이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非”를 뜻하는 단어로 ‘정구지’나 ‘졸’이 아닌 ‘부추’를 써야 할 것이며, ‘밧는다’는 /발른다/가 아닌 /밤는다/로 발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국민은 표준 발음을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³⁾ 그런데 표준어란 대부분의 화자에게는 자신의 기층방언과는 다른 말이며, 서울말 화자라고 하여도 표준어가 서울말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가 없다. 따라서 표준어 및 표준 발음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 교육에 귀속될 것인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는 폭넓고도 치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⁴⁾

II.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적 연구

1. 발음 실태 조사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교육 대상자인 학생의 발음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⁵⁾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여 적절히 조직하며 교육 후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어떠한 발음을 잘 하고 잘 못하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
- 3) 어떤 상황에서 표준 발음을 써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발음 교육이 아니라, ‘발음’ 차원을 넘어선 ‘말하기’의 전략에 속한다.
 - 4) 표준 발음의 교육은 정서법 및 로마자 표기법 교육에서도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비어두의 /ㄱ/를 정확히 발음한다면 어미의 ‘-더라, -던’을 ‘-드라, -든’과 같이 잘못 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ㄱ/와 /ㄴ/를 분명히 구별한다면 ‘찌개’를 ‘찌게’로 표기한다거나 ‘집게’를 ‘집개’로 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선릉(宣陵)’의 발음을 정확히 /설릉/으로 알고 있다면 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seonneung’과 ‘seolleung’으로 표기하여 혼란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 5) 표준 발음, 발음 교육 등에 대한 교사나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도 한다. 대체로 표준 발음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에 있는 만큼 몇 가지 점에서 지역방언 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우선 제보자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 각각의 제보자가 어떠한 어형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제보자들의 발음 경향을 파악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많은 수의 제보자로부터 얻은 조사 결과는 균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층방언별, 성별, 연령별 요인을 고려하여 조사의 목적에 맞게끔 제보자의 수를 적절히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보자 발음의 어떠한 면을 고찰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조사의 초점이 표준 발음의 구사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h/와 /k/의 구별이나 /r/, ɾ/의 발음 양상 등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평음과 경음의 구별이나 /l/, ɾ, ɻ/ 등의 발음 양상 등은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음운현상에 있어서도 비음화나 유음화, 장애음 뒤의 경음화 등과 같이 표준 발음과 달리 발음되기 어려운 경우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 즉 음운이나 단어 혹은 문장에 대하여 비표준적인 발음이 존재하여 오류를 범할 만한 것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편리하다.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보자의 기층방언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의 조사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진 것들 이외에도 해당 방언의 특수한 음운현상, 예컨대 제보자가 남부방언권 화자라면 ‘기-(籥)+-어도→계:도’ 혹은 ‘기--+어도→기:도’ 등과 같은 현상이 학생들에게서 얼마나 실현되는지도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부방언 화자에게는 조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남부방언 화자라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발음 교육의 내용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 대상을 선정할 다음에는 여러 조건을 정밀하게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움라우트를 조사한다고 할 때에는 동화주, 피동화음, 개재자음을 모두 고려하여 조사 항목을 고르게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문법적 요소도 고려하여 형태소 내부의 것과의 경계를 사이에 둔 것을 모두 선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대부분

분 조사 대상이 넓어서 이와 같은 정밀함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조사 대상을 좁힌 孟柱元(1987)은 /h, k, ɳ/를 대상으로 하여 항목을 정함에 있어서 음절 위치를 고려하기도 하였고, 윤명숙(1996)은 /-/에 대하여 초성으로 자음이 있는 경우, 어두와 비어두, 조사 '-의'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기도 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발음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제보자의 실제 발음을 녹취하는 면담법을 취하여야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조사의 편의를 내세워 질문지법으로 대신하여 왔다. 물론 孟柱元(1987), 申昇容(2003) 등과 같이 순수히 녹음된 자료만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제보자의 일부에게 면담을 통하여 보조자료를 수집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시된 단어나 문장에 대한 제보자의 발음을 표기하거나 선택하게 하였다. 만일 제보자가 자신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표기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나으려만 주된 제보자인 학생들은 그러하지도 못한 경우가 많다. 결국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는 정밀성을 지니지 못한다.⁶⁾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질문지법을 이용한 자료를 주자료로 이용할 수는 없다. 제보자의 수를 제한하고 조사 대상을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발음 실태의 조사는 반드시 면담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태 조사는 표준 발음의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일상적인 발음을 채록할 것이 아니라 제보자 나름의 표준 발음을 채록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발화를 채록하는 일반적인 방언 조사와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제보자가 부산에 사는 중학교 1학년의 여학생이라고 할 때, 발음 교육 연구자가 조사하는 것은 특정 지역, 직업, 세대, 성별의 사람이 쓰는 지역적·사회적 방언이 아니라, 그 제보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는 표준 발음이어야 한다.⁷⁾ 제보자가 학

6)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있고'의 첫 음절 발음으로 /일/이 15%밖에 안 되고 그 밖의 /잇, 잇, 있/이 8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발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7) 조사하여야 할 것은 제보자가 표준 발음을 할 줄 아느냐이지 평상시에 표준 발음을 하

생이라면 申昇容(2003)에서와 같이 수업 시간 중 제보자의 발표를 채록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도 제보자에게 최대한 표준적으로 발음할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채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표준 발음의 실태 조사는 특별한 어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발음의 경향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계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기층방언, 연령, 성별 등에 따른 발음의 차이는 없는지, 익숙한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의 발음 차이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인 면 예컨대 /ㅅ, ㅆ/의 구별 능력과 /ㅡ, ㅣ/의 구별 능력의 차이는 없는지, ㄴ 첨가와 자음군단순화에서의 오류율 차이는 없는지, 같은 자음군단순화라고 하여도 ㄹ과 ㄹㅇ의 경우와 ㄹㅇ의 경우의 차이는 없는지, 같은 어간이라고 하여도 '읽더라'와 '읽는다'에서의 자음군단순화의 차이는 없는지 등 통계를 이용하여 살필 부분은 매우 많다.

2. 교육 및 지도 방법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원론적 논의 및 발음 지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올바른 발음 교육을 위한 토대가 된다.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발음 실태의 조사 연구 혹은 표준 발음 및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의 조사 연구 말미에 제언의 형식을 빌려, 교사의 양성·자격증 발급·채용·연수 및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金恩珠, 1988)든지, 국가·사회적 측면 및 교재 개발, 교사, 평가 등의 측면에서의 지원

고 있느냐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질문지법에 의한 스스로의 한계라 하여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질문지법이라면 자연 발화보다는 격식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조사의 목적에 근접한 것이라 할 것이다.

8)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도 제시된 단어에 대해서 평소의 발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표준 발음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있어야 한다(조성심, 1992)든지 하는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이문규(2000)은 발음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발음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논의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발음 교육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1) 개별성을 추구하는 발음 교육
- (2) 언어 기능으로서의 발음 교육
- (3) 표준어 교육과 발음 교육
- (4) 조음·청취 훈련과 발음 교육

첫째, 전국의 학생들이 처해 있는 기층방언적 차이, 나아가 개인적 차이까지도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에 적절히 투영되어야 한다. 개별성 추구의 정도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및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맞물려 숙고되어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기층방언적 차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목표하는 바가 같더라도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노정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발음 교육은 언어 능력의 신장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언어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음운론적 지식의 교육은 국어지식 교육의 일부로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발음 교육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자체가 발음 교육은 아니다.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도 여러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조음음성학적 기술 및 형태음운론적 기술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방언이나 이중언어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발음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표준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 발음의 교육이 유효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발음 교육에서 일반화하여 지도하기 어려운 단어의 발음은 어휘 교육에서 일부 다룸으로써 발음 교육을 <말하기>에만 한정할 것

이 아니라 <읽기>에서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발음을 교정한 다든가 새로 배우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

넷째, 조음·청취 훈련이 중요하다. 이는 단어의 발음보다는 음운의 정확한 발음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표준 발음 구사 능력 및 음운론적·음성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교사의 재교육보다는 수업 보조자료의 개발에 힘쓰는 편이 나을 듯하다.

한편 구체적인 발음 지도 방법에 대하여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음운의 조음음성학적 기술에 그치거나 간략한 언급만 해 둔 경우도 적지 않다. 발음 지도는 대체로 정확한 발음을 듣고,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보며, 스스로 발음을 연습하여 이를 반복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적 탐구를 통해 습득한 발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게 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는데, 그 기본 골격은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동영상을 통해 쉽게 보여 줄 수 있게 되었으며, 金炳燮(1997)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여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발음 지도법에 대한 연구는 때로 수업 지도안이 제안될 정도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안된 지도법이 왜 따를 만한지 즉, 다른 지도법에 비해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孟柱元(1987), 李智惠(2001), 배상미(2001), 최병림(2003) 등은 제안된 지도법에 따른 실험군과 다른 지도법에 따른 비교군을 설정하고 교육 후 평가 결과를 측정한 바 있다.

Ⅲ. 발음 교육의 내용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점이다.

본장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토대로 하여, 발음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를 음운의 정확한 발음과 단어(곡용형·활용형 포함)의 표준 발음으로 나누어 소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각 학년의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에서 발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학년 1학기
 - ㅏ, ㅣ (아기, 이마, 바지 등)
 - ㅓ, ㅗ (오리, 수영, 노루 등)
 - ㅕ, ㅖ, ㅛ (불, 빨, 풀 등)
 - ㅜ, ㅠ, ㅠ (고추장, 꼬마, 꼬끼리 등)
- ◆ 1학년 2학기
 - ㅑ, ㅋ, ㅓ, ㅗ (야구, 여우, 요리, 유리창 등)
 - ㄷ, ㅌ, ㅍ (다리미, 따오기, 태극기 등)
 - ㅈ, ㅉ, ㅊ (자다, 짜다, 차다 등)
- ◆ 2학년 1학기
 - ㅙ, ㅞ (개, 게 등)
 - ㅛ, ㅜ (과자, 원두막 등)
 - ㅜ, ㅞ (살, 쌀 등)
 - 음장 (발, 발:, 눈, 눈: 등)
- ◆ 2학년 2학기
 - ㅎ (호두, 은행 등)
 - 음장 (술, 술:, 굽다, 굽:다 등)
 - 연음 (국어, 문어, 등산을, 집에 등)
- ◆ 3학년 1학기
 - ㅑ, ㅓ (은어, 고등어, 걸음 등)
 - ㄹ (라디오, 발 등)
 - (의사, 의복 등)
- ◆ 3학년 2학기
 - 축약 (국화, 만형, 입학 등)
 - 음절말 중화 (갓, 부엌, 무릎 등)
- ◆ 4학년 1학기
 - ㅙ, ㅞ (돼지, 괜찮다 등)
 - ㄷ, ㅌ (닭도/닭이, 굶다/굶어 등)

- ◆ 4학년 2학기
 - ㄴ, ㄱ (왼쪽, 위인, 되, 쥐 등)
 - ㄷ, ㅌ (에누리, 무예 등)
- ◆ 5학년 1학기
 - ㄹ, ㄽ, ㄾ (넓다/넓어, 훑다/훑아, 읊다/읊어 등)
 - ㄴ 첨가 (눈약, 맨입 등)
- ◆ 5학년 2학기
 - ㄱ, ㄴ, ㄹ, ㅁ (샅도/샅이, 없고/없으니, 옹고/옹으니, 없고/없으니 등)
 - 구개음화 (해돋이, 붙이다 등)
- ◆ 6학년 1학기
 - 경음화 (국밥, 꽃다발, 낫선 등)
 - ㄴ→ㄹ, ㄹ→ㄴ (담력, 정리, 난로, 줄넘기 등)
- ◆ 6학년 2학기
 - 비음화 (다나무, 받는다, 앞마당 등)

1. 음운의 정확한 발음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자음과 모음을 정확한 음가대로 발음하게 하기 위한 내용은 앞선 교육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학년에 주로 편성되어 있다.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가르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잘못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음운들의 발음을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되-(化)'의 활용형 '되고', '되어서~돼서'의 표준 발음이 각각 /되고~뉘고/, /되어서~뉘어서~뉘:서/임을 가르친다고 하여도 학생이 /니, ㄷ, ㅌ/ 등을 제대로 구별하여 발음·인식할 수 없다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자음의 발음에 관한 내용으로는 우선 평음·경음·격음의 구별이 1학년 1학기(이하 <1-1>로 표기)에서 <2-1>에 걸쳐 다루어진 후,⁹⁾ 어두 및 공명음 사이에서의 /ㅎ/의 발음이 다루어지고, 초성과 종성의 /ㄹ/이

9) ㄷ 계열, ㅌ 계열, ㄹ 계열은 용례에 최소대립쌍이 제시되어 있으나 ㄱ 계열과 ㄴ 계열은 그렇지 않다. 필요하다면 '굴 : 꿀 : 꿀이나' '달 : 딸 : 탈'을 제시하여도 괜찮을 듯하다.

<3-1>에서 다루어져 있다. 이전 교육 과정에 ‘감 : 강, 병 : 별’과 같이 용례로나마 다루어진 바 있는 비음의 발음은 누락되었다.

폐쇄음과 파찰음의 평음·경음·격음은 어느 방언 화자도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다만 마찰음인 /ㄱ/과 /ㄷ/의 구별만은 일부 동남방 언권 학생에게 주의를 기울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간혹 초등학생들이 ‘폭발(爆發)’을 /폭빨/이 아닌 /폭팔/로 발음한다든가 ‘도랑’을 /도랑/이 아닌 /또랑/으로 발음하는 일이 있는데(이종희 2003:24~26), 이는 이들 단어의 지저형을 //폭팔//, //또랑//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이 평음·경음·격음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구별은 발음 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2-2>에는 어두와 어중의 /ㅎ/이 다루어져 있는바, 이 중 어두의 /ㅎ/은 누구나 별 무리 없이 발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다. 공명음에 후행하는 /ㅎ/은 활용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표준발음법>에 탈락이 가능하다고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말을 비롯한 모든 방언에서 흔히 탈락되므로 오히려 발음하지 않는 편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예컨대 ‘은행(銀行)’을 /으냉/이 아닌 /은행/으로 발음한다면, 마치 읽기를 갓 배운 아이가 자질 사이에 휴지를 두고 책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발음이 되고 만다.

<3-1>에는 자음의 발음으로는 마지막으로 /ㄹ/이 다루어져 있는바, 초성의 /ㄹ/과 종성의 /ㄹ/의 발음이 다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혹 초성의 /ㄹ/을 설측음으로 발음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의미 변별과는 무관하므로 교정될 까닭이 없으며, 종성의 /ㄹ/은 언제나 설측음으로만 발음할 뿐 이를 탄설음으로 발음할 수는 없다. 이러한 내용은 이음(allophone)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발음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부부(夫婦)’의 첫째 /ㅂ/은 무성음으로, 둘째 /ㅂ/은 유성음으로 소리남을 이는 것은 발음 교육은 물론 음운론 교육도 아니요, 음성학 교육이 되고 만다.

모음의 발음에 관한 내용은 자음보다 많아 모두 10개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모음의 조음영역이 자음에 비하여 다소 넓고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모음의 교육은 /ㅏ, ㅣ, ㅓ, ㅜ/로 시작되는데, 이들이 초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우선 /ㅏ, ㅣ, ㅜ/가 기본적인 모음이고 발음의 혼동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발음이 혼란스럽거나 어려운 모음들에 앞서 상대적으로 발음이 쉬운 모음들을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이 단원에서는 단지 발음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발성(phonation) 및 극단적 조음의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즉 정확한 발음에 앞서 명확한 발음(enunciation)을 연습하는 것이다. 충분한 양의 기류를 충분한 세기로 내어 보내는 것은 명확한 발음의 기초가 되는데, 극단적인 조음점을 지닌 /ㅏ, ㅣ, ㅜ/는 그 연습을 하기에 적절하여 보인다. 또한 이들 모음의 조음 훈련은 다른 한편으로 여타 모음들의 발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예컨대 /ㅣ/를 발음할 때 최대한 턱을 올리고 /ㅏ/를 발음할 때 최대한 턱을 내림으로써 그 사이에서 발음되는 /ㅓ/와 /ㅕ/를 위한 조음영역을 충분히 확보해 둘 수 있고 그로 인하여 /ㅓ/와 /ㅕ/의 구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ㅜ/의 원순성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이보다 원순성이 약한 /ㅓ/와의 구별이나 평순의 /ㅡ/와의 구별도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2>의 /ㅑ, ㅓ, ㅕ, ㅛ/는 ‘겨울, 효도’를 제외한 용례가 모두 초성에 자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¹¹⁾ 이러한 \$JV는 거의 모든 방언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쉬운 발음인 것으로 보아 본 단원의 목표가 <1-1>의 두 단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반면 초성에 자음을 지닌 CjV는 일부 방언에서 음변화나 공시적 변동으로 인하여 달리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이중모음이 다른 단원에서 다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단원에서 발음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원의 목표가 단어 발음의 교정에 있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별(星)’의 발음이 /별:/이 아니라 /별:/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별:/의 /

10) 대립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발음의 구별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ㅜ/와 함께 /ㅓ/가 있다고 하여 이것이 음변화 ‘ㅓ’ㅜ/를 겪은 ‘삼춘(三寸), 두, 구’ 등의 단어나 조사, 어미의 발음을 교정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
 11) 이에 앞선 단원들에도 이중모음이 들어간 용례는 ‘수영, 우유’로서 초성에 자음이 없다.

ㄱ/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1>의 /ㄱ/, ㄱ/ 역시 마찬가지로, ‘과자(菓子)’를 /가자/가 아닌 /과자/로 발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ㄱ/ 자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단모음 중 구별이 가장 어려운 /ㅈ, ㅉ/는 <2-1>에서, 그리고 이를 핵모음으로 하는 이중모음 /ㅈ애, ㅉ애/, /ㅉ/는 각각 <4-1>과 <4-2>에서 다루어져 있다. /ㅈ/와 /ㅉ/는 상당수의 최소대립쌍을 지님에도 전국적으로 그 구별이 매우 혼란스러운 모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음소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발음할 수 있는 어두에서 초성에 자음이 없는 것부터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초성에 자음이 있는 것과 비어두의 것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예. 애 → 개 → 자애 → 찌개). 그런 점에서 <2-1>은 우선 어두에서의 구별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좋을 듯하다. <4-1>의 /ㅈ애, ㅉ애/는 활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지, 웬’ 등과 같이 초성에 자음이 없는 것부터 연습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¹²⁾ <4-2>는 /ㅈ/와 /ㅉ/의 구별을 위한 단원이라기보다는 단지 /ㅉ/의 발음을 연습하기 위한 단원으로 보인다. 국어에서 /ㅈ/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ㅈ/와 /ㅉ/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단원에서 아쉬운 점은 용례가 초성에 자음을 지니지 않은 것들에 그쳤다는 점이다. 초성에 자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ㄹ/이 아니라면 /ㅉ/로 발음해도 좋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3-1>에는 /ㄱ, --/가 다루어져 있는데, 단원의 목표가 다소 불분명하다. 일부 동남방언권 학생을 제외하고 어두의 /ㄱ/와 /--/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비어두에서의 두 모음이 혼란은 주로 ‘하더라(하+--더라)’/하드라/와 같이 /ㄱ/를 /--/로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용례에서는 ‘고등어, 버드나무’ 등과 같이 비어두의 /--/를 연

12) /ㅈ애, ㅉ애/의 구별은 /ㄱ/와도 관련된다.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되-’의 활용형 ‘되지’의 표준 발음은 /되지/와 /돼지/인데, /ㅉ애/와 /ㅉ애/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를 /돼지/로도 발음하게 될 것이다.

습시키고 있다. /ㄱ, -/의 구별은 일부 동남방언권 학생에게는 환경에 상관없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 밖의 방언권 학생에게는 비어두에서 /ㄱ/를 /-/로 발음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도 충분하다.

〈4-2〉에는 마지막 단모음 /ㄱ, ㄱ/가 다루어져 있다. '되, 쥐'를 제외하고는 용례가 모두 초성에 자음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들임을 보아, 발음이 어려운 단모음을 연습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두 모음은 〈표준발음법〉에서 이중모음 /we, wi/로의 발음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학생들에게 단모음으로 발음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3-1〉에는 발음이 까다로운 이중모음 /ㄱ/가 다루어져 있는데, 초성에 자음이 없는 어두의 용례만을 든 것 역시 발음의 초보적 연습을 위한 것이라 이해된다. 물론 철자 발음(spelling pronunciation)을 피하기 위해 초성에 자음이 있는 경우나 조사 '-의'의 발음을 가르쳐도 좋을 것이다.

〈2-1〉, 〈2-2〉에는 음장이 다루어져 있는데, 이 단원은 국어에 음장이 의미를 변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데에 만족하여야 할 듯하다. 장음을 지닌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르친다고 하여도, 표기에 드러나지 않는 운소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배워 익히기는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2. 단어의 표준 발음

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제 음가대로 발음하는 것이 발음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그보다 큰 단위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맑지만, 맨입'의 표준 발음이 /막찌만, 맨닙/임을 모든 학생이 알고 있다면 발음 교육은 음운의 교육에 그쳐도 좋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말찌만, 매닙/으로 발음하는 학생도 많기 때문이다.

단어의 표준 발음은 따로 단원을 마련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자음군단순화나 ㄴ 첨가와 같이 매우 규

칙적인 현상은 따로 단원을 편성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랑'의 표준 발음이 /도랑/이 아닌 /도랑/이라든지 '안간힘'의 표준 발음이 /안간힘/이 아닌 /안간힘/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단원을 따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단어들은 교과서의 곳곳에 유사한 현상의 단어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발음 정보를 표시하거나 교사가 수업 중에 그릇된 발음을 교정함으로써 표준 발음을 습득하게 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제7차 교육 과정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편한 내용으로서 연음(2-2), ㅎ 축약(3-2), 음절말 중화(3-2), 자음군단순화(4-1, 5-1, 5-2), ㄴ 첨가(5-1), 구개음화(5-2), 경음화(6-1), 'ㄹ→ㄴ'(6-1), 'ㄴ→ㄹ'(6-1), 비음화(6-2)가 다루어져 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음운론적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한, 이 많은 현상들 중 정작 학생들의 표준 발음을 위하여 가르쳐져야 할 것은 몇 되지 않는다.

〈3-2〉의 ㅎ 축약과 음절말 중화, 〈6-1〉의 경음화와 'ㄹ→ㄴ', 〈6-2〉의 비음화는 거의 모든 화자들이 〈표준발음법〉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화'를 /구과/가 아닌 /국화/로, '갯'을 /갓/이 아닌 /갯/으로, '국밥'을 /국뺨/이 아닌 /국밥/으로, '담력'을 /담녁/이 아닌 /담력/으로, '닥나무'를 /당나무/가 아닌 /닥나무/로 발음하는 학생은 없다. 예상할 수 있는 비표준 발음이 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음군단순화에서도 /ㅍ/(4-1), // (5-1), /, ㅍ, ㅑ, ㅓ/(5-2)은 불필요하다. 각각의 자음군에서 /ㅁ, ㄹ, ㄱ, ㄴ, ㄷ, ㅂ/을 탈락시키는 비표준 발음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ㄹ, ㅑ, /의 자음군단순화, ㄴ 첨가, 구개음화, 'ㄴ→ㄹ'이다. 자음군단순화는 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 의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탈락하는 자음이 저마다 달라 〈표준발음법〉에서 정한 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ㄴ 첨가는 첨가된 /ㄴ/이 /ㄹ/로 발음되는 '들일' 등과 함께,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둔 '한 일, 할 일' 등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개음화는 치조폐쇄음과 /i, j/의 연쇄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경

우 철자대로 발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발음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ㄴ→ㄹ'도 대체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지만 '광한루'와 같은 단어의 경우 /광한누/로 발음할 수 있기에 교육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단어의 표준 발음과 관련하여 현행 교과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2-2>의 연음이나 <3-2>의 음절말 중화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용언과는 달리 체언의 어간말에 위치한 //ㄱ, ㅍ//, //ㅈ, ㅊ, ㅌ//은 흔히 //ㄱ, ㅍ//, //ㅈ//으로 재구조화되어 '부엌, 숲'을 //부억, 숲//으로, '젓, 꽃, 밭'을 //젓, 꽃, 밧//으로 알고 발음하는 일이 많은데, 이들을 연음과 음절말 중화를 통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둔 '밭 아래, 냇 없다' 등도 절음을 통하여 /바다래, 너 겁따/로 발음됨을 이와 함께 혹은 자음군단순화와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자어에서 /ㄹ/ 뒤의 평치조음이 경음으로 소리나는 현상도 일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단원으로 편성하여 가르칠 만하다.

방언을 염두에 둔다면 단어의 표준 발음에 관한 내용은 이보다 더욱 많아진다. 대부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가 결합할 때의 것인 바, 몇몇 예를 들자면 모음조화(예. 바꾸+아→빠꾸), 완전순행동화(예. 이기+어도→이기도), ㄷ 축약(예. 이기+어도→이게도), 음라우트(예. 밥+아→배비), 비모음화(예. 산+이→사이[sāi]) 등이 그것이다. 이문규(2000)에서 강조되었듯이 각 방언권을 큼직하게나마 나누어 철저한 조사를 행한 후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표준어와 표준 발음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모든 발화 상황에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화 상황에서라든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써야 한다. 일종의 이

중방언 화자가 되어 필요시에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대상자의 발음 실태 조사는 발음 교육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이다. 실태 조사는 그 결과의 통계를 통하여 발음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제보자의 기층방언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현상에 한정하여 정밀한 기준으로 조사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는 면담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보자의 일상적인 발음을 채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 나름의 표준 발음을 채록하여야 한다.

발음 교육의 방법은 개별성을 추구하는 발음 교육, 언어 기능으로서의 발음 교육, 표준어 교육과 발음 교육, 조음·청취 훈련과 발음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지도법을 제시할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발음 교육의 내용은 크게 음운의 정확한 발음과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음의 발음은 일부 방언권 학생을 위한 /ㄱ/과 /ㄴ/의 구별 정도만이 필요할 듯하다. 모음의 발음은 기본적인 모음을 기초로 하여 구별이 어렵거나 조음이 까다로운 모음의 순서로, 초성에 자음이 없는 어두의 것부터 훈련할 필요가 있다. 단어의 발음 중 규칙적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비표준 발음이 보고되는 경우에 한하여 따로 단원을 마련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때 그때 가르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국어과에서 〈말하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말하기〉에서 발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발음 교육은 하찮아 보이기까지 한다. 버려둘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건져야 할 것이니, 정밀한 실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교육 내용 구성 및 지도 방법의 구상에 발음 교육 전문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 10. 20. 투고되었으며, 2005. 11.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1.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성원(2002), “標準發音과 高校生의 現演發音에 對한 比較 研究”,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선(1991),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 『초등교육연구논총』(대구교대) 3, pp.59~70.
- 金炳燮(1997), “初等學校 國語 發音 學習을 위한 멀티미디어 CAI 코스웨어의 設計 및 具現”, 韓國敎員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成煥(1992), “표준발음지도 내용(I)”, 『論文集』(大邱敎大) 27, pp.55~73.
- 金成煥(1997), “표준발음지도 내용(II)”, 『論文集』(大邱敎大) 32, pp.39~56.
- 김영현(1997), “중학생의 국어발음의 오류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恩珠(1988), “高校生의 國語發音 誤用에 관한 調査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俊培(1992), “국어발음 바로 내기를 위한 학습지도 방안”,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天基(2001), “初等學校 低學年의 發音 指導에 관한 研究”, 公州敎育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박갑수(2004),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반성”, 『새국어생활』 14-1, pp.5~22.
- 박영미(200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표준발음 지도법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수·강종표(1997), “컴퓨터를 활용한 표준 발음 교육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초등국어교육』 13, pp.171~203.
- 배상미(2000), “우리말 발음 지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덕현(1994), “말하기 교육의 기초적 연구 - 발음 지도를 중심으로”, 『先濤語文』(서울대) 22, pp.221~243.
- 성낙수(2004), “초등학생들의 표준 발음 실태 및 지도 방안”, 『한국어문교육』 13, pp.1~28.
- 신순용(1995), “중학교 국어과 발음교육 실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申昇容(2003), “標準發音의 실제와 표준발음법 敎育의 필요성”, 『語文研究』 118, pp.97~116.
- 양옥선(2000), “초등학생 발음 오류 현상의 분석”, 이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애(1999), “보령 지역 중학생의 발음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만근(1993), “발음중시 국어교육론”, 『말』 18, pp.105~118.
- 윤명숙(1996), “청주지역 중·고등학생의 발음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석(2004), “효과적인 표준 발음 교육”, 『말소리』 51, pp.17~37.
- 이묘복(2001), “발음지도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규(2000), “발음 교육의 개념과 방향”, 『어문학교육』 22, pp.221~235.
- 이재용(1995), “교과서의 음운 변동 규칙 편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희(2003), “초등학생의 국어 표준발음 오류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李智惠(2001), “중학생의 국어발음 실태 조사 연구”, 세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喆洙(1993), “標準發音의 教育”, 『學生生活研究』(仁荷大) 13, pp.27~45.
- 이철수(1999), “발음교육론 서설”, 『先淸語文』(서울대) 27, pp.35~63.
- 이현복(1992), “《말하기·듣기》 교과서와 발음 교육”, 『교육 한글』 5, pp.49~73.
- 이혜진(2002), “초등 학교 발음 지도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심(1992), “국민학교 어린이의 발음교육 실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창규(1996), “국어의 표준 발음법과 그 교육”, 『論文集』(圓光大) 17, pp.41~64.
- 최병림(2003), “탐구 학습을 통한 국어 발음 지도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崔聖鎬(1971), 『音聲言語의 指導』, 春潮社
- 최윤환(1995), “이·목·구 훈련을 통한 체계적 표준 발음 지도 방안”, 『교육 한글』 8, pp.7~28.

〈초록〉

발음 교육에 대한 단상

김 현

발음 교육은 사회적 규범에 분명하게 맞고 효과적인 언어 생활이 가능하도록 발음하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하여 표준 발음이 제정되어 있는바, 공식적인 발화 상황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표준 발음의 구사 능력을 지녀야 한다.

발음 교육을 위하여는 우선 교육 대상자의 발음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큰 틀에서의 교육 방법과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음 실태 조사는 궁극적으로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방언 조사와는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

발음 교육의 내용은 크게 음운의 정확한 발음과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비표준적 발음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정작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핵심어】 표준어, 표준 발음, 이중방언, 음운 발음, 단어 발음

<Abstract>

On Pronunciation Teaching

Kim, Hyun

It is the purpose of pronunciation teaching that people can pronounce according to social norms so a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effectively. For this purpose Standard Pronunciation is provided and everyone should have a good command of SP not only for official or formal utterances but also for casual utterances as the need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arises.

Desirable teaching of pronunciation can be achieved on the basis of a survey on the students' pronunciation and a research on the educational method and guidance. In particular, pronunciation survey should be performed differently from ordinary survey on regional dialects.

Contents of pronunciation teaching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exact pronunciation of phonemes and the correct pronunciation of words including conjugational forms and inflectional forms.

[Key words] standard language, standard pronunciation, bi-dialectal, phoneme articulation, word pronunciation